자동차 내열용 ABS수지 PP로 대체

현대 · 기아자동차 등 경쟁력 강화 차원 … ABS수지 수요 둔화 전망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생산기업이 자동차 내장재 부품용 내열성ABS수지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에 비해 값이 싼 PP로 대체시킴에 따라 자동차용 ABS수요량이 감소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93년11월 현재 자동차용 ABS 월별 수요량은 현대자동차가 400톤, 기아자동차 300톤, 대우자동차가 230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내장재 부품중에서는 주로 Console · Housing · Back Mirror · Gear Box · Globe Box 등과 같은 Instrument Parcel 부품류, Door Trim, Fillar 등에 내열성 ABS수지가 사용되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외장의 Instrument Pannel이나 소품 중에 ABS Core에 철판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Instrument Pannel에는 ABS수지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1대당 플래스틱 사용량은 엑셀1(차중량 900KG) 62.99KG으로 플래스틱화율이 7%로 나타났으며, 엑셀2(1018KG)는 79.55KG으로 7.81%, 스쿠프(1003KG)는 89.1KG으로 8.89%, 그랜져(1337KG)는 107.3KG으로 8.02%인데, 이 중 8.8% 이상이 PP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차 위주로 내열성 ABS수지를 복합 PP(강화 PP)로 대체시켜 물성을 개량시키고 있는데, 기아자동차의 수출용 모델인 아스파이어는 이미 복합 PP로 대체시켰다.
향후 3~4년간은 자동차 1대당 ABS 수요량이 감소할 전망이며, 3~4년이 지난 이후 ABS사용량이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가 개발중인 고급차종 모델도 기존에 비해 ABS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업계는 주로 그 기술제휴선이 일본인데,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일본 Mitsubishi로 전환되었으며 대우자동차도 미국에서 일본 Honda로 바뀌었고, 기아자동차는 기존 일본모델과 그대로 제휴하고 있다. 일본은 2~3년전 부터 PP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었는데, 최근 디자인이나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고급차종위주로 ABS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화학저널 1993/12/13>